

발행인: 노용균 200-710
 편집인: 조세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로 길 1 (효자2동 192-1)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조세연 교수 연구실내
 발행일: 2005년 4월 19일 전화: (033) 250-8145
 URL: <http://society.kordic.re.kr/~ksli/> e-mail: sycho@kangwon.ac.kr

1.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언어와 정보]에 실을 원고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사용 논문은 자유로운 스타일로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꼭 논문 요약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외 논문의 스타일은 학회 홈페이지(<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정소우 교수 (swchung@cc.sungshin.ac.kr)
-------	--

◆ 논문 게재와 관련된 비용들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심사료: 없음

게재료: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 전임 50,000원, 비전임 20,000원,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전임/비전임 150,000원

라텍 전환비: 20,000원

2. 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안내

2005년도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20,000원, 준회원 10,000원이며,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는 250,000원입니다. 연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다음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한국언어정보학회, 계좌번호 012336-01-001683, 우체국)

3. 알림

◆ Call for Papers: 15th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제 15회 J/K 언어학 학술대회가 2005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개최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2005년 5월 1일까지 500자 이내의 초록을 eall@mailplus.wisc.edu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http://polyglot.lss.wisc.edu/easian/>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한국언어정보학회 2005 여름학술대회가 동국대학교(경주 캠퍼스)에서 2005년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개최됩니다. 본 대회는 “자연언어의 구조와 지식의 통합”이라는 대주제하에 개최되며, 학술대회에 관한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한국언어정보학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혹시 학술대회와 관련된 의문사항은 채희락 (hrchae@hufs.ac.kr) 교수님에게 문의를 바랍니다.

◆ 의미론-화용론 분야 용어 표준화추진위원회

우리 학회는 의미론-화용론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용어들에 대해 약간의 질서를 부여해 주자는

뜻으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계의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일단 "의미론-화용론 분야 용어 표준화 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약간명의 위원을 임명하여 (가)용어의 수집 및 정리, (나) 경쟁하는 용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용어를(용어들을) 고르는 기준 마련, (다) 용어의 사용자인 우리 학회 회원들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라) 학회 추천 용어집의 발간 및 현저성(강제력?) 부여방안 논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것입니다. 양정석 교수(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jsyang@dragon.yonsei.ac.kr)가 위원장이 됩니다. 이 노력의 성공 정도는 회원 선생님들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직결되는 만큼, 학술 활동과 차세대 학자 양성교육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이라고 할 용어문제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양위원장님의 부탁이 있으면 흔쾌히 위원직을 수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한국어정보학회의 월례논문 발표회

◆ 그간 한국어정보학회에서는 학기별 월례회와 더불어 구구조/제약기반문법연구회 워크샵을 따로이 추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이 두 연구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특강 세션을 오전 일찍 제공하여 학문 후속 세대가 할 수 있는 석, 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언어학을 좀더 친밀하게 느끼게 하며, 학회 소속 회원님들께는 상호간의 이론을 쉽게 상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회원간의 학문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시도한 본 연구회는 지난 3월에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비교적 성황리에 첫 연구회를 마쳤습니다. 금번 4월 연구회는 유은정 교수님 (서울대) 및 정대호 교수님 (한양대)께서 특강을 이끌어 주시고, 아래에 첨부한 바와 같이 저희 회원 세 분이 일반 발표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연구회 전달인 금요일에는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숙소가 필요하신 분은 총무 조세연 교수 (sycho@kangwon.ac.kr) 에게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정보학회 2005년 4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귀엽단다’의 중의성

채희락

한국의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용언의 어간에 붙는 각종 요소들은 지배-결속 이론의 전통에서와는 달리 대부분은 순수한 굴절접사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 (Chae & No 1998). 그렇지만 종결어미 다음에 나오는 요소들은 어절 외곽 요소이기 때문에 용언에 딸린 요소가 아니라 외부 요소인 “접어(clitics)”일 가능성이 크다. 인용격 조사 ‘-고’와 ‘귀엽단다’와 같은 표현의 ‘-니다’ 등이 이런 요소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귀엽단다’는 중간에 ‘-고 하-’가 생략된 준말로 쓰이거나 ‘-단다’ 전체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중의적 표현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환원적 융합” vs. “비환원적 융합”) (남기심 1973, 안명철 1992, 이필영 1993, 이지양 1993 등). 즉, ‘귀엽단다’는 ‘철수는 영희가 귀엽단다’에서처럼 제3자의 말을 보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내 딸은 참 귀엽단다’와 같이 화자가 직접 기술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단다₁’이라고 하고 후자를 ‘-단다₂’라고 했을 때, ‘-단다₁’을 ‘-다-고 하-니다’로 분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단다₂’를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없는 비환원적 융합에서도 ‘-니다’ 자리에 다른 종류의 종결어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이) 많-다-니다/-네/-오/-습니다. 이처럼 ‘-단다₂’에서 ‘-니다’ 부분이 생산적이기 때문에 ‘-단다₂’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는 없다. 만약 이를 단일 형태

소로 분석한다면 ‘-다네₂’ ‘-다오₂’와 ‘-답니다₂’를 모두 단일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동일한 평서문 어미 ‘-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니다’ 자리에 경어법 등급에 따른 어미가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단다₂’도 ‘-다-니다₂’로 분석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니다₂’를 ‘-니다₁’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전자를 접어로 보고 후자는 일반 어말어미로 볼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생략 용법을 보이는 ‘바쁘단다’는 [바쁘-다-고 하-니다₁]로 분석하고 비생략 용법을 보이는 ‘바쁘단다’는 [바쁘-다-니다₂]로 분석을 하는데, 전자의 ‘-니다₁’은 동사 어간에 붙는 종결어미이고 후자의 ‘-니다₂’는 종결어미로 끝나는 용언에 붙는 접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쁘단다’의 두 용법에는 ‘-고 하’의 생략여부와 ‘-니다’의 형태/통사적 지위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접어 분석의 타당성은, 한 마디로 하면, 해당 단위가 독립된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종결어미 다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중간에 동사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단위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지배-결속 이론의 전통을 따라 (거의) 모든 용언 어미를 통사적으로는 독립된 단어, 즉 접어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단다₂’를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 접어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일반적인 용언 어미를 접어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 외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모든 용언 어미는 단일 형태소 접어인데 왜 ‘-단다₂’만 다중 형태소 접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 데이터 베이스 의미론 구현 시론

최재웅
고려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의미론(DB Semantics)은 자료구조로서 어휘은행(Wordbank)을, 그리고 알고리즘으로는 좌연접 문법 (Left-Associative Grammar)를 취하는 문법 모형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언어처리 능력을 구현하는 인지 모형을 지향한다. 그러기 위해서 DB의미론은 인간의 의사소통능력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인간의 언어 이해능력, 표상 및 추론 능력, 그리고 발화 능력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으로, 각 부문이 독립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각 부문의 정보표상 방식이나 처리 알고리즘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표상방식의 핵심 단위는 proplet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concept을 중심으로하되 자질을 추가한 형태로 되어 있다. DB의미론의 이론적 토대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아주 세밀한 수준까지 제시되어 있으나 (Hausser 1999, 2001) 이를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JSLIM, Java로 구현됨)은 최근에야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Hausser, in progress). 본 발표에서는 DB의미론의 구현 체계인 JSLIM에 입각하여 한국어의 간단한 표 일부를 Java로 구현한 사례를 청취(Hear), 사고(Think), 발화(Speak) 등 세부 방식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참고도서

Hausser, R. (1999, 2001) Foundations of Computational Linguistics, Human-Computer Communication in Natural Language. 2nd Edition 2001, pp. 578, Berlin, New York: Springer-Verlag. (번역본 있음)

Hausser, R. (2001) "Database Semantics for Natural Language," Artificial Intelligence, Vol. 130.1:27-74, Dordrecht: Elsevier.

Hausser, in progress Database Semantics for Natural Language Communication

부가어의 격 표시: 개념의미론적 분석

전 종 섭

한국의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Maling, Jun & Kim (2001)에 따르면 국어의 시간/빈도 부사구 격 표시 현상은 (1) 대격 표시만을 허용하는 술어들, (2) 주격 표시만을 허용하는 술어들, 그리고 (3) 대격과 주격의 교체를 허용하는 술어들로 나눌 수 있다. 대격 표시만을 허용하는 술어들은 비상태성 동사나, 하- 결합 술어 등을 포함하는데 주어 명사구로는 의지를 가진 생명체나 사동의 원인자가 나온다 (예: 인호가 한 시간 동안을 달리었다, 인호가 한 시간 동안을 영어를 공부하였다). 주격 표시만을 허용하는 술어들은 심리 술어나 하-와 결합하지 않은 형용사 술어들이다 (예: 아기는 젓 먹는 동안이 귀엽다). 대격과 주격의 교체를 허용하는 술어들은 비대격 동사들이나 수동 동사들이다 (예: 비가 한 시간 동안-을/이 왔다, 그 책이 한 시간 동안-을/이 읽혔다). Maling, Jun & Kim은 이 세 가지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통사적 격 표시 장치로서 층위내 격 이론 (Case-in-Tiers Theory)의 부분 수정을 제안하는데, 이에 따르면 대격은 동사구 안에서만 부여되며 따라서 통사적으로 동사구 밖에 외부 논항이 표현되었을 때만 대격이 부가어에 표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은 왜 대격의 부가가 외부 논항 혹은 행동주 주어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J. S. Jun (2003, Brandeis 대학교 학위 논문)에서 발전시킨 개념의미론적 격 이론을 바탕으로 국어 부가어 격 표시 현상을 분석한다. Jun (2003)에서는 격이 통사부와 의미부에 독립적으로 배당되어 상호 경쟁을 통해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동일한 분석을 국어 부가어의 격 표시 현상에 적용하게 되면 Maling, Jun & Kim의 일반화를 자연스럽게 포착함과 아울러 대격 표시가 행동주 주어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이론의 자연스런 귀결로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05학년도 1학기 월례회 일정표

장소: 대우재단 8층 1실 일사: 토요일 8:30-12:20

날짜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3월 26일 (토)	특강 I 8:30-9:50	최인철 (경북대) 채명희(조선이공대)	등위구문에 관한 접근법들: GPSG vs. HPSG	윤재학 (경희대)
	휴식(10분)			
	기획 논문 10:00-10:50	조정민(순천대)	A Morpho-syntactic Study of Predicate Topic Constructions in Korean	
	일반 논문 11:00-11:40 11:40-12:20	윤영은(이화여대) 염재일(홍익대)	The Interpretation of Bare Plurals '-거든' 조건문의 제약과 의미	
4월 23일	특강 II 8:30-9:50	유은정(서울대) 정대호(한양대)	등위구문에 관한 접근법들: GB vs. HPSG	조세연 (강원대)
	휴식 (10분)			
	일반 논문 10:00-10:40	채희락(한국외대)	'귀엽단다'의 중의성 분석	

(토)	일반 논문 10:50-11:30 11:30-12:20	최재웅(고려대) 전종섭(한국외대)	한국어 데이터 베이스 의미론 구현 시론 부가어의 격표시: 개념의미론적 분석	
5월28일 (토)	특강 III 8:30-9:50	최혜원(이화여대) 정찬 (동서대)	등위구문에 관한 접근법들: LFG vs. HPSG	유은정 (서울대)
	휴식(10분)			
	기획논문 10:00-10:50	류수린 (서울대, 독일 Erfurt대)	Functional Domains of Korean Converbs	
	일반논문 11:00-11:40 11:40-12:20	류병래(충남대) 윤재학(경희대)	TBA TBA	